

울란바토르 지하철 프로젝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 협력 추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지하철 건설, 운영, 유지보수를 담당할 600여 명의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몽골과 한국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몽골 국립대학교(NZDTG), 몽골 과학기술대학교(ШУТИС), 그리고 "Dohwa Engineering"이 협력해 한국과 몽골에서 각각 2년씩 수학하는 '2+2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사립 및 국립 대학교와 협력을 추진 중이다.



협력 제안에 응한 한국의 대학 중 하나로, 한국 최초로 고속철도를 건설한 한라대학교가 선정되었다. 2024년 12월 25일, 양국 간의 3자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으며, 한국의 푸연시 및 한라대학교가 몽골의 지하철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라대학교 김인권 총장은 “이번 협력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히 기술 지원을 넘어 울란바토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의 시간 절약 및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지하철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몽골 역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되는 만큼, 학교 차원에서도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라 그룹의 자회사들은 자동차 및 철도 부품 제조 분야에서 세계 46위에 올라 있는 기업이다. 이를 기반으로 몽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현지 전문 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